‘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최근 비수도권에 사는 인구 절반(49%)이 ‘우리 지역 20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비율은 농어촌의 비중이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농어촌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척박한 지역이다. 고령화, 일자리 감소, 경제 위축, 사회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대책이 쉽지 않다. 이런 농어촌에서 하는 목회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인 3명 중 2명(65%)이 60대 이상 노인이며, 10개 중 7개 교회는 교인이 30명이 채 안 되며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 등의 목회 환경은 목회자를 탈진하게 만들고(84%가 동의) 담임목사직을 그만 둘 생각까지 하게 하지만(66%가 경험)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84%가 동의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음을 기대하게 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소속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이다.

이번 〈넘버즈 189호〉를 통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심도 있게 논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자료 출처 : 전국 경제인연합회,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 조사. 2023 4. 11.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대상. 2023.3.24.~30.)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54&category=ST)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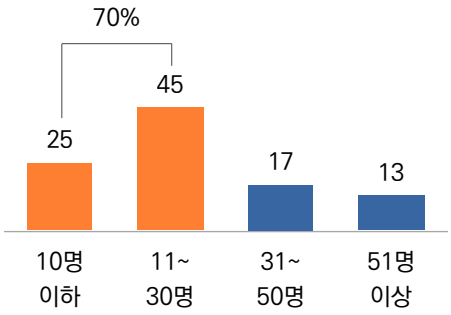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전국 농어촌 교회 담임목사
•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총 504명 (유효 표본) - 전체 농어촌 교회 1,533개 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회수율은 32.9%였음
• 표본 추출	연회별 교회 구성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함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6%p
• 조사 기간	2022년 11월 9일 ~ 12월 16일 (38일간)
•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농어촌환경부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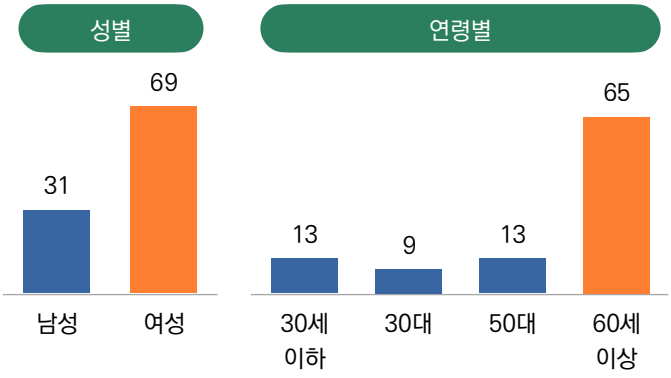
01 [농어촌 교회 현황]
농어촌 교회 교인 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노인!

- 농어촌 교회의 출석 교인 수를 지난 주일 예배 참석한 성인 기준으로 살펴봤다. 11~30명 규모가 45%로 가장 많았고 10명 이하 규모는 25%로, 교인 30명 이하 교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여성이 69%로 남성(31%)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5%를 차지했다.

[그림] 농어촌 교회 출석 교인 수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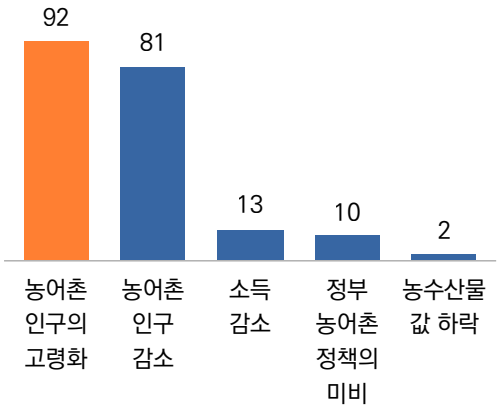
[그림] 성·연령별 농어촌 교회 교인 구성비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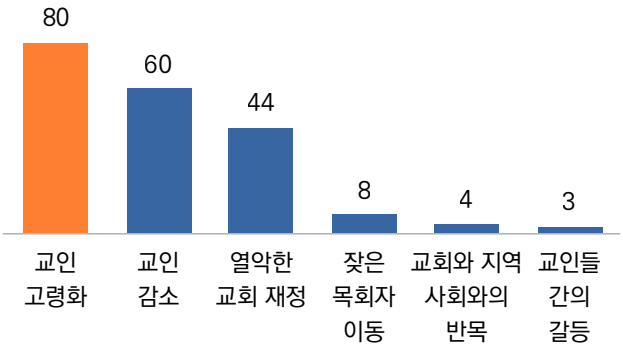
02 [농어촌 교회의 현실]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화'!

- 농어촌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92%)와 '농어촌 인구 감소'(81%) 응답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인 고령화'(80%)와 '교인 감소'(60%)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 두 문제는 농어촌 현실 문제와 동일했다. 즉 지역 문제가 농어촌 교회와 직결되고 있었다.

[그림] 농어촌 문제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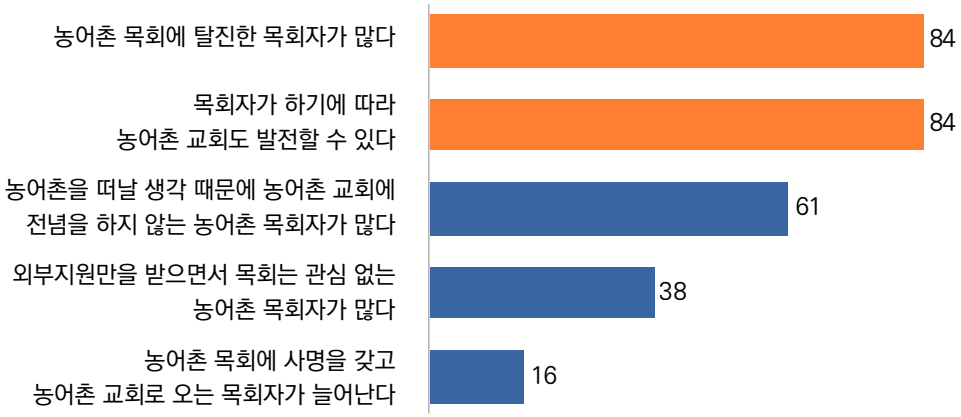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의 문제점 (1+2순위, %)



◎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84%!

-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농어촌 교회의 현실에 대해 어두운 평가를 하고 있으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84%)에 동의하여 농어촌 교회 목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에 84%가 동의해 ‘목회자’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와 부담감이 공존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에 대한 이슈 동의율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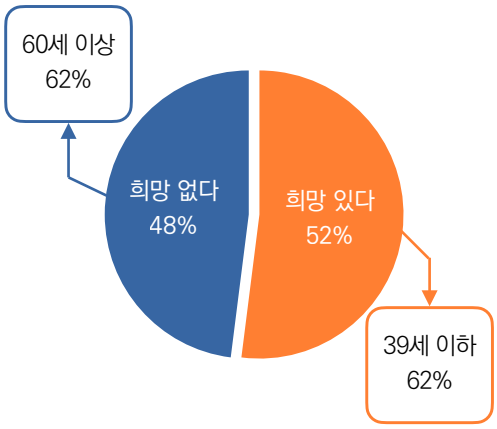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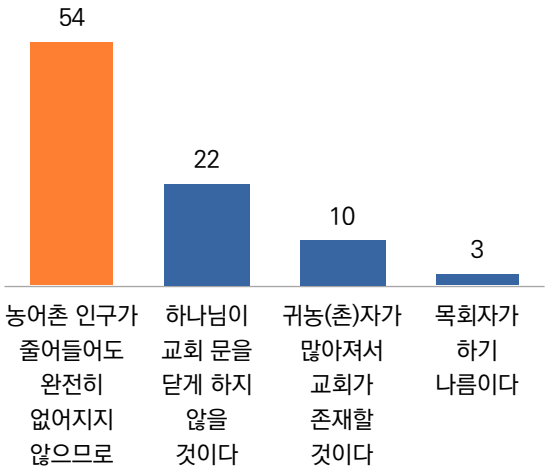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52%), “시골 교회에 희망이 있다”!

-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8%가 ‘희망이 없다’고 응답해 미래를 어둡게 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희망이 있다’는 비율도 52%나 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39세 이하의 62%는 ‘희망 있다’고 동의한 반면 60세 이상 목회자의 62%는 ‘희망 없다’에 동의했다.
-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로는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5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농어촌 교회 목회를 선교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응답이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대한 희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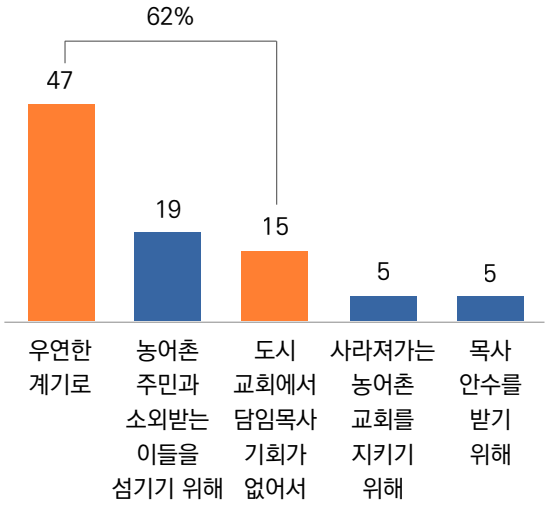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
(‘농어촌 교회에 희망 있다’ 동의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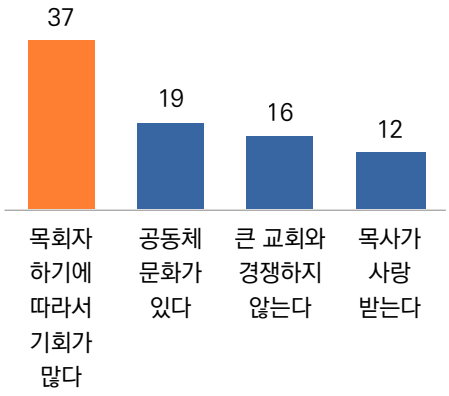
03 [농어촌 교회의 목회]
농어촌 목회의 장점, “목사 하기에 따라 기회가 많아” 37%!

- 농어촌 목회를 하게 된 이유로 ‘우연한 계기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도시 교회에서 담임목사 기회가 없어서’(15%)을 포함하면 농촌 목회를 비계획적인 이유로 시작 하게 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목회자 하기에 따라서 기회가 많다’를 3명 가운데 1명 이상(37%)이 응답했다. 농어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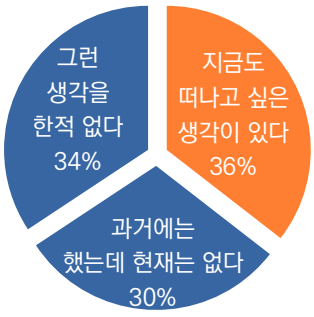
[그림] 농어촌 교회 목회 장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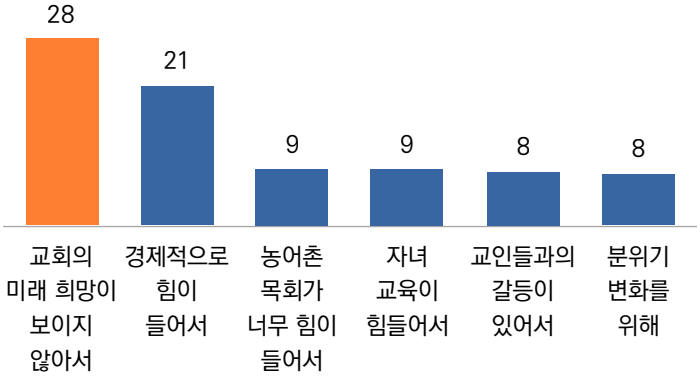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자 36%, “교회 떠나고 싶다”!

-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현재 담임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3명 가운데 1명 남짓(36%)은 ‘지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현재는 없다’(30%)까지 포함하면 전체 목회자의 66%가 농어촌 교회 목회를 그만 둘 생각을 한 셈이다.
- 교회를 떠날 생각을 현재 하거나 혹은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8%)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다.

[그림] 현 담임교회 떠날 생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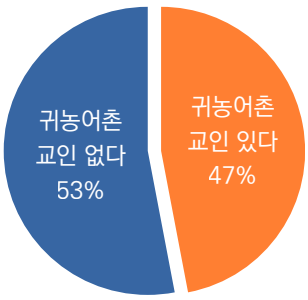
[그림] 현 담임교회 떠나려는 이유
(현 담임교회 떠날 생각 경험 목회자,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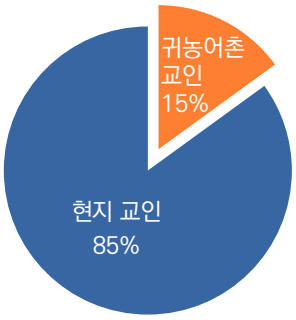
◎ 농어촌 교회의 절반, 귀농어촌 교인 있어!

- 교회에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 정도(47%)가 있다고 응답했다. 귀농어촌 교인이 전체 교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 정도이며, 귀농어촌 교인의 12%정도는 귀농 후 신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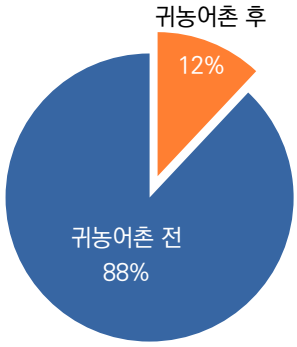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 출석 여부



[그림] 귀농어촌 교인 평균 비율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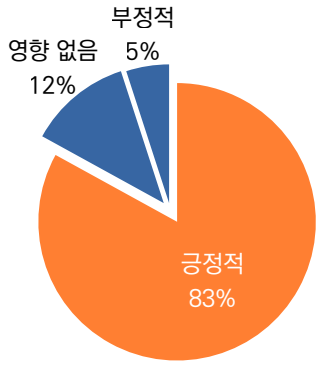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의 신앙 가진 시기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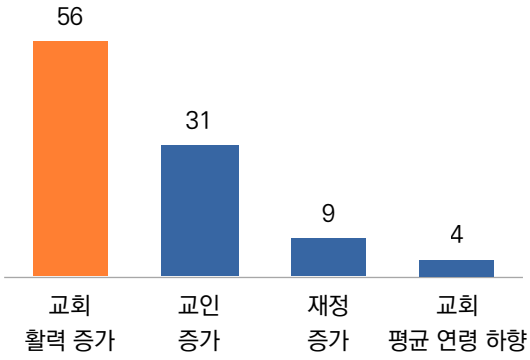
◎ 귀농어촌 교인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83%!

- 귀농어촌한 교인들이 교회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적 영향’이 83%로 나타나 농어촌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어촌한 교인들이 미치는 가장 큰 긍정적 영향으로는 ‘교인 증가’(31%)도 있지만 단순 수적인 증가보다는 ‘교회 활력 증가’(56%)가 단연 최고의 영향으로 꼽혔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귀농어촌 교인의 유입이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귀농어촌 교인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
(귀농어촌 교인 있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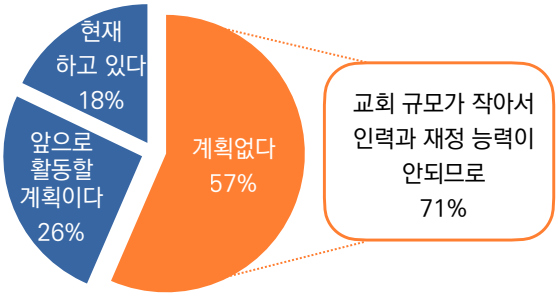
[그림] 귀농어촌 교인의 긍정적 영향
(귀농어촌 교인이 긍정적 영향 미치는 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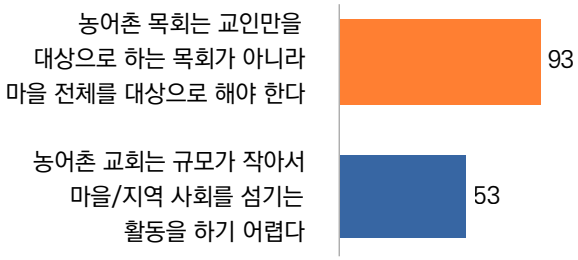
04 [농어촌 교회와 지역 사회]
“농어촌 목회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93%!

- 교회에서 마을목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 ‘하고 있다’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 마을목회에 대해 ‘계획 없다’(57%)고 응답한 목회자의 71%는 ‘교회 규모 작고 인력/재정 능력 미비’를 주 이유로 꼽았다.
- 농어촌 목회에 대해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93%가 동의해 농어촌 목회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거의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림] 마을목회 하는 비율



[그림] 농어촌 목회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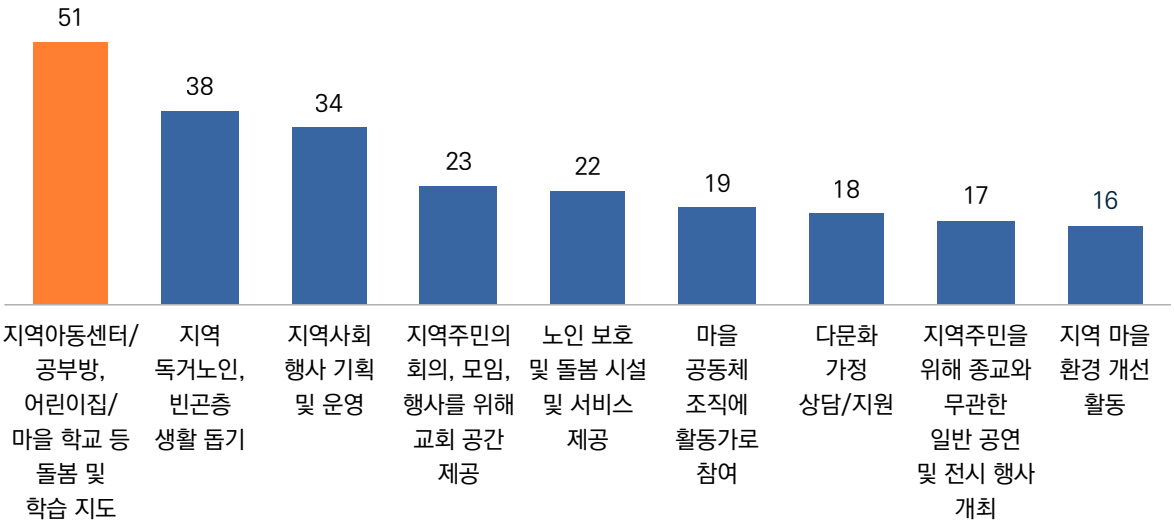


*4점 척도임

◎ 가장 많이 하는 마을목회는 ‘아동을 위한 돌봄 및 학습 지도’!

- 농어촌 교회가 하는 마을목회 활동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집/마을 학교 등 돌봄 및 학습지도’(51%)가 가장 보편적인 마을목회 활동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은 ‘지역 독거노인, 빈곤층 생활 돕기’(38%)였다. 마을목회가 지역 복지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마을목회 하는 내용 (마을목회 하는 교회, 복수응답, 상위 9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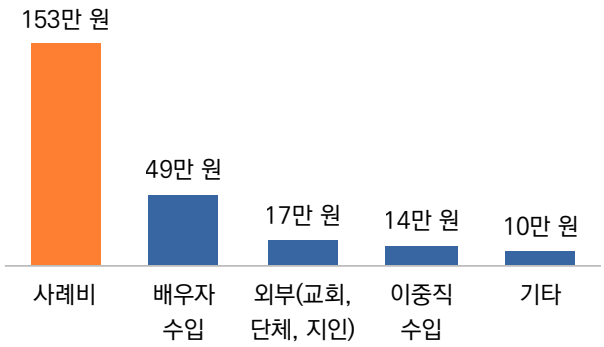


05 [농어촌 교회의 재정]
목회 사례비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쳐!

- 농어촌 목회자의 월 가구 수입은 평균 24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구성비를 보면 '교회사례비'가 15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수입'이 49만 원, 외부(교회, 선교단체, 지인)의 보조가 17만 원 순이었다.
- 조사를 진행한 2022년의 최저 시급에 따른 월급여액 191만 원과 비교하면 '교회 사례비'는 '153만 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였다.

[그림] 월 가구 수입

[그림] 월 가구 수입의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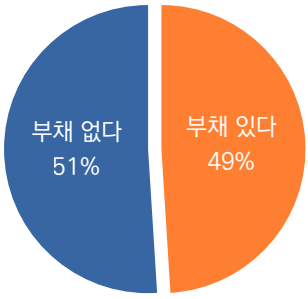


*해당 수입이 없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504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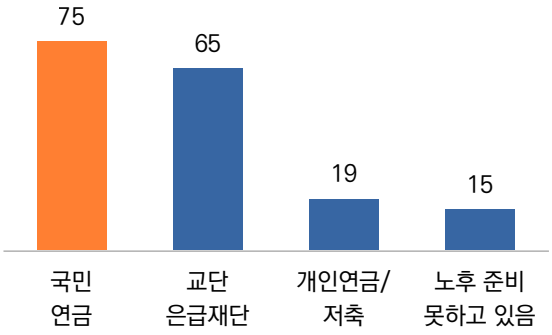
◎ 농어촌 목회자 절반(49%)은 부채 있어!

- 농어촌 목회자 중 개인 부채가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인 49%로 조사되었으며,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75%)이 4명 가운데 3명이 응답할 만큼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단 은급재단'(65%)도 과반수가 준비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15%나 되었다.

[그림] 개인 부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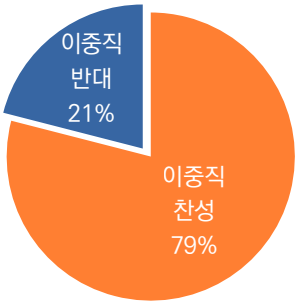
[그림] 은퇴 후 노후 준비 (복수응답, 상위 4위, %)



06 [농어촌 교회의 이중직]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8명은(79%) '이중직'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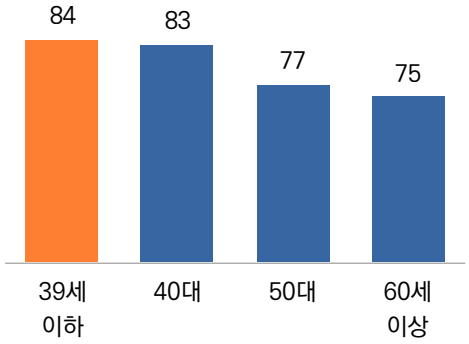
-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5명 중 4명이(79%) 찬성할 정도로 목회자의 이중직은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 이중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이중직에 대한 찬반 의견
(적극+약간 찬성 비율)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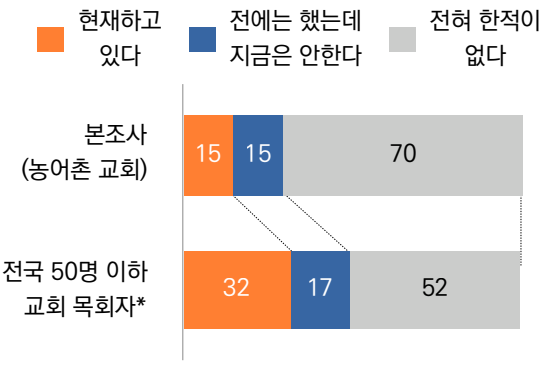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이중직 찬성 비율 (%)



◎ 현재 이중직 비율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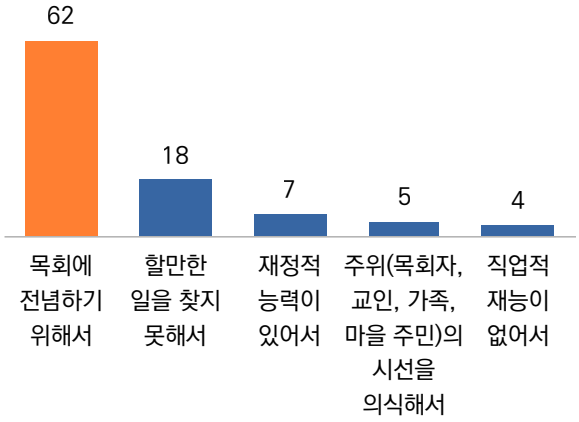
- 이중직에 대해 '현재 하고 있다'가 15%로 나타났는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도 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전국의 50명 이하 소형교회 목회자 기준 이중직 여부를 비교해 보면,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이중직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직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6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할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18%)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림] 이중직 수행 여부



*자료 출처 : 예장합동/목회데이터연구소, 이중직 목회자 실태 조사, 2021.06.
(전국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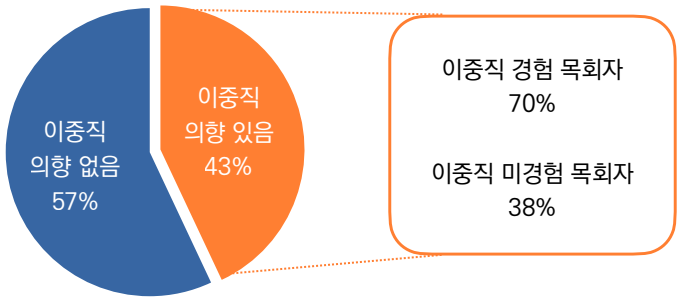
[그림] 이중직을 하지 않은 이유
(이중직을 하지 않는 목회자, %)



◎ 현재 이중직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 43%, “앞으로 이중직 할 의향 있다”!

-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에게 앞으로의 이중직 의향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4명(43%) 정도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직 경험자의 의향률(70%)은 이중직 미경험자의 의향률(3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향후 이중직 수행 의향 (이중직을 현재 안 하는 목회자)



시사점

1884년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농촌 인구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촌 선교가 곧 한국 선교를 의미했고 농촌의 부흥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의미했다.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촌락으로 이뤄진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마을 전체를 목회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이번 넘버즈의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농어촌 교회 1533개 중 504개 교회의 담임목사가 응답했는데, 1970년도 이전에 창립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비율이 32%에 달해 농촌 선교로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서 농가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70년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46%)에 해당하는 1442만 명에서 2019년 전체 인구의 4% 정도인 225만 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이중 절반(47%)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다.[1]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목회의 문제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농어촌 목회자들은 '교인 고령화'(80%), '교인 감소'(60%), '열악한 교회 재정'(44%)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농촌 목회자들은 3명 중 1명 이상이 담임목사직 이탈을 고민하고 있었다.

문제점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이러한 농어촌 목회의 반복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농어촌 교회 목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싶다.

첫째, 농어촌 교회 목회자에 대한 교육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목회를 위해 농어촌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목회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처음 부임하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농어촌에서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 사역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농어촌자 대상 목회 필요성이다. 귀농어촌 인구는 농촌과 도시 교류 차원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를 감안할 때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귀농어촌 교인이 있는 교회 목회자의 83%가 귀농어촌 교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새롭게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잘 안내하고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잘 화합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목회자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마을 목회는 개교회 활동만으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정 교회가 마을공동체 활동에 홀로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다른 교회를 물색하여 협력 사업을 벌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활동을 하는 벌이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목회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목회자의 사례비와 월 소득은 거의 극빈층에 해당할 정도로 좋지 않다. 실제 평균 사례비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153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교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중직을 보다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농업을 포함한 적합한 직업 훈련도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목회자 최저생활 보장 제도나 기본 소득 제도,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은급 제도 현실화 등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 교회에 대해 희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52%)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희망이 있는 이유가 의미심장하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므로'(54%)가 가장 높았고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22%)이 그다음이었다. 농어촌 목회를 단순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가 아닌 '선교적 차원'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통계청.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2020.11.17